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2020.11.19.)

# 헛돈 쓰는 군단위 장학재단, 인 권위 결정 무시한 채 명문대 장 학금 강행...SKY진학보다 지역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 사교육걱정은 인권위의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개선 조사 및 의견표명 이후, 2020년 군 단위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조사함.
- ▲ 조사결과, 2018년에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21%)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음.
- ▲ 전북 부안군군농인재육성재단은 각계계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수혜 학년 확대 등 다양한 인재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 강원도 홍천군·평창군, 경북 예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신안군·해남군 등 총 8곳이 특정대학(우수대학,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음.
- ▲ 하지만 나머지 30곳의 지자체들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한 채,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여전히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음. 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음.

- ▲ 일부 장학재단은 특정대학 합격자 지도교사를 우수 교사로 포상, 공교육 내 교사의 역량조차 학벌 위주의 진학 실적으로 재단하며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음.
- ▲ 경제곤란 장학금의 10배 이상을 우수대학 장학금으로 집중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8조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의 책임을 방기하고, 인권위 결정을 무시,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위반하고,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음.
- ▲ 지자체 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함.
- ▲ 또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인권위법 개정 등을 포함해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함.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를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 단위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림1]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개선 의견표명 결정문

가. 특정대학교 및 특정학과를 진학했다는 이유로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볼 수 있다.

(중략)

또한,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되고,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기 보다는 이름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몰입하게 되면서 초·중·등 교육은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되며, 대학 간 서열화 및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 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진정대상이었던 38개 장학재단이 2020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얼마나 폐지하였는지를 장학생 선발 공고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2018년에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79%에 달하는 30곳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음.

장학금 폐지 여부 행정구역	2018년 대비 2020년 '특정대학 진학장학금 폐지' (총8곳)	2018년 대비 2020년 '특정대학 진학장학금 유지' (총30곳)
<b>강원도</b> (총 11개 군 중 8곳 진정)	홍천군무궁화장학회/ 평창장학회 (2곳)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양구군양록장학회/ 인제군장학회/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철원장학회 (6곳)
<b>충북</b> (총 8개 군 중 4곳 진정)	-	보은군민장학회/ 증평군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음성장학회 (4곳)
<b>충남</b> (총 7개 군 중 2곳 진정)	-	서천사랑장학회/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2곳)
<b>전북</b> (총 8개 군 중 5곳 진정)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2곳)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순창군옥천장학회/ 완주군애향장학회 (3곳)
<b>전남</b> (총 17개 군 중 5곳 진정)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신안군장학재단/ 해남군장학기금 (3곳)	무안군승달장학회/ 영암군민장학회 (2곳)
<b>경북</b> (총 13개 군 중 8곳 진정 )	예천군민장학회 (1곳)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울진군장학재단/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7곳)
<b>경남</b> (총 10개 군 중 6곳 진정)	-	남해군향토장학회/ 의령군장학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산청군향토장학회 (6곳)

■ 전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각계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폐지, 반값등록금 수혜 학년을 넓히는 등 다양한 인재들에게 폭넓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 강원도 홍천군·평창군, 경북 예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신안군·해남군 등 총 8곳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음.

이 중 전북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각계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 수혜 대상이었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수혜 학년을 넓히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며,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해 다양한 인재들에게 폭넓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림2]의 부안군 관계자 인터뷰와 같이 장학사업이 특정 몇몇의 수혜로 끝나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이어져 지역 전반의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림2] 헬로TV뉴스, 부안군군농인재육성재단 'sky캐슬' 논란 (2019.10.10.)



특히 관과 장학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방향 모색을 위해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인 군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은 다른 장학재단에 모범이 될만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전북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또한 2018년에 존재했던 △SKY 장학금을 없애고, △우수대학에 진학시킨 우수교직원에 대한 일반장학금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권 중심의 장학제도를 개편하여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금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림3] 2020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선발공고

**1 장학생 선발개요**

○ 선발분야

<7분야> 중·고등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대학생 성적우수, 희망, 특기, 대학비진학창업·취업학원비 지원

전남 구례군인재육성기금 또한 장학금 사업이 개선되어 △2018년 상반기의 특정학교를 지정한 미래인재 장학생 선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신 △2019년, 2020년 상반기에는 다문화 장학금을 신설하고, 다자녀, 성적우수 장학생의 선발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림4] 2018년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 공고

구분	자격	인원	금액	1인당 최대지원액	
합계		124	116,000		
대학생	소계		29	58,000	
	성적우수	소계	15	30,000	
		신입생	5	10,000	2,000
		재학생	10	20,000	2,000
	저소득층	소계	2	4,000	
		신입생	1	2,000	2,000
		재학생	1	2,000	2,000
	미래인재	6개대학	10	20,000	2,000
	다자녀	신입·재학생	2	4,000	2,000

[그림5] 2020년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 공고

구분	자격	인원	금액	1인당 최대지원액	
합계		124	116,000		
대학생	소계		29	58,000	
	성적우수	소계	20	40,000	
		신입생	7	14,000	2,000
		재학생	13	26,000	2,000
	저소득층	소계	2	4,000	
		신입생	1	2,000	2,000
		재학생	1	2,000	2,000
	다자녀	신입·재학생	6	12,000	2,000
	다문화	신입·재학생	1	2,000	2,000

여기에 강원 홍천군무궁화장학회, 평창장학회, 경북 예천군민장학회, 전남 신안군장학재단, 해남군장학기금 또한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 모두 8곳이 장학금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30곳의 지자체들은 장학금 개선이라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한 채,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여전히 고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음. 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음.

하지만 나머지 30곳의 지자체들은 장학금 개선이라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한 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나 포스텍, 의·치·한의대 등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여전히 1000만원~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었습니다.

경남 의령군장학회는 명문대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관련 장학금은 ‘우수대학’ 장학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액수도 서울대는 1천5백만원에 이르는 등 [그림 6]과 같이 명문대 위주의 장학금 쏠림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림6] 2020년 의령군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구분	분야별 증빙서류	공통 서류	
초·중·고등학생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	○ 대회 입상 성적증명서 ※ 학교장 원본대조필	○ 장학생 지원서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 별지 서식에 의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사무소 발급) ○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성적우수자 관내 고교진학 장학금	○ 중학교 내신 백분위가 기재된 석차 연명부	
	고등학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고등학생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 자격증 ※ 학교장 원본대조필	
대학생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 최종등록대학 납입고지서 ○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우수대학에 진학하거나 수능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으로, 지급은 1회에 한함	
○ 탐구과목은 2개 과목 평균하여 수능성적 등급 산출	
○ 한국사는 수능성적 등급 합산 시 제외	
○ 우수대학 진학 기준은 대학별 본교에 한정	
○ 서울대	○ 장 학 금: 1천5백만원
○ 고려대, 연세대	○ 장 학 금: 1천만원
○ 의예과(의학과, 의학부, 의과대학)	○ 장 학 금: 3백만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장 학 금: 5백만원
○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 장 학 금: 5백만원
○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 장 학 금: 5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3이내	○ 장 학 금: 6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4이내	○ 장 학 금: 5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5이내	○ 장 학 금: 4백만원
○ 수능성적 3개영역 합이 6이내	○ 장 학 금: 3백만원
○ 수능성적 2개영역 합이 4이내	○ 장 학 금: 2백만원

또 충남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경우에는 명문대 입학 장학금이 1천만원에 달하는 데에 반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충남도립대학교 입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1백만원에 그쳐 그 차이가 10배에 달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 유일의 공립대학으로 충남 지역발전에 기여할 실무형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의 학생들보다,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명문대 진학을 이유로 10배가 넘는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북 완주군애향장학회 또한 지역대학 입학생의 5배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금액을 대학진학 우수 신입생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림7] 2020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장학금 종류	대상자	지금액 (천원)	비고
명문대 입학 장학금	대학생(신입생) - 관내 중고 졸업생	10,000	생활비
	대학생(신입생) - 관내 고교 졸업생	5,000	생활비
충남도립대학교 입학 장학금	대학생	1,000	생활비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	관내고등학교 입학성적 1등	3,000	생활비
	관내고등학교 입학성적 2등	2,000	생활비
	관내고등학교 상위10% 이내 입학	1,000	생활비

[그림8] 2020년 완주군애향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장학금 구분	지원 범위
일반 장학금	대학생 (신입생/재학생) - 2~3년제 대학생 및 4년제 이상 대학생 최대 400만원 이내(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학비 범위 내 지원(학비 범위 내 타 장학금 수혜 가능하며, 타 장학금 수혜 시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
	생 활 (신입생/재학생) - 최대 300만원(1학기 150만원 / 2학기 150만원)
특별 장학금	대학진학우수 (신입생) - 1,000만원(1학기 500만원 / 2학기 500만원)
	지역대학입학 (신입생) - 200만원 × 1회
	지역고교 입학 - 500만원 - 관내 고교 입학시 300만원 또는 100만원(2020년 1학년) - 2~3년 재학생 매년 100만원 지급(단, 직전학년 내신 성적 2등급 이내 유지자(9등급제 내신 성적기준))
	장학우수 (고등학교2~3학년) - 100만원 × 1회
예체능	개인전 - 국제대회 금 300만원, 은 200만원, 동 100만원 전국대회 금 100만원, 은 70만원, 동 50만원
	단체전 - 국제대회 금 200만원, 은 150만원, 동 100만원 전국대회 금 80만원, 은 50만원, 동 30만원

경북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도 특정대학 진학자들에게 포상금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서울대 입학생의 경우 포상금이 1천만원에 달했고, 서울대에 재학하는 3년간 연2회 등 록금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재학생 장학금은 오로지 서울대 진학자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었습니다.

[그림9] 2020년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인재육성사업 공고

□ 대 학 생 : 지역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자(개인 신청 후 법인이사회 선정)
○ 신입생 : 전국석차 10%이내 또는 수능 2개영역 이상 2등급이내로 4년제 대학 진학자
• 포상금 1회 5백만원 / 4월 선정
○ 신입생 : 연세대(서울), 고려대(서울), 카이스트, 포스텍, 전국대학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에 입학한자
• 포상금 1회 5백만원 / 4월 선정
○ 서울대학교 입학생 : 포상금 1회 10백만원 / 4월 선정·지급
○ 서울대학교 재학생(2~4학년) : 3년간 연2회 등록금 / 4월 선정(4월, 10월 지급)

경북 울진군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 입학자들에 대한 울진사랑 특별장학금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유지하면서, 2020년에는 외국대학 진학자와 수능 성적 평균 1.5등급 이내 대학입학자까지 더해 특권적 장학금 수혜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1인당 4백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주어졌는데, 일반 대학생 장학금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등) 복지장학금이 100만원, 학업우수 장학금이 100만원인데 비해 4배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본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고액의 사교육비를 유발하여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외고를 포함, 특목고, 영재학교 등의 재학생(졸업생)을 특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철저히 입시결과와 학벌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림10] 2020년 울진사랑특별장학금 신청 공고

(단위:천원)

구 분	지 원 기 준	인당 지원액	비고
①우수대학 입학	• 우수대학 입학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및 의과계열(의예, 치의예, 한의예) 대학 입학자	4,000	관내 관외
②수능성적 우수	• 수능 성적 평균이 1.5등급 이내인 대학 입학자	4,000	관내 관외
③글로벌 인재	• 관내고등학교 3학년 평균성적이 상위 10%이내 인 자 중 외국소재 대학 4년제 이상 입학자	4,000	관내

○ 선발기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을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울진군에 둔 자 - 2020학년도 선발대학 입학 예정자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 부모 모두 대상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공고일 현재 울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상학생이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 관내에 없는 유형의 고등학교 재학생(졸업생) - 2020학년도 선발대학 입학 예정자



경북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또한 우수대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년~4년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 저소득층 장학생, 일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특별장학생 등이 연 1회 지급을 받고, 그 금액이 1인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과 눈에 띄게 대비되었습니다. 또 우수대학 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의 성적 하한선이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보다 더 낮게 제시되어 있어 자격조건에 있어서의 타대학 진학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림11] 2020년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

<p><b>1.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b></p> <p>라. 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생 : 재적학년 직전 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인 자</li> <li>○ 대학생(3년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1학년) : 고등학교 최종 내신 성적이 100분의 10 이내인 자</li> <li>- 재학생(2~4학년) : 직전 학년(1학기, 2학기) 평점이 <u>4.5기준 시 3.7 이상</u></li> </ul> </li> </ul> <p>인 자</p> <p><b>9. 우수대학 재학 장학생</b></p> <p>가. 선발예정인원 : 약간 명</p> <p>나. 소요예산 : 30,000천원</p> <p>다. 신청대상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우수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편입생 제외)</p> <p>라. 신청자격 : <u>학기별 최고성적 4.5 기준 시 3.0이상인 자</u></p> <p>마.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접수</p> <p>바. 지급금액(학기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에 재학 중인 자 : 4년 등록금 전액 지원</li> <li>○ 전국 의과대, 한의대, 치과대에 재학 중인 자 : 2년 등록금 전액 지원</li> </ul> <p>사. 선발방법: 적격자에 한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p>
---

■ 일부 장학재단은 특정대학 합격자 지도교사를 우수 교사로 포상, 공교육 내 교사의 역량조차 학벌 위주의 진학 실적으로 재단하며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음.

전북 무안군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아래와 같이 명문대 합격자 또는 명문대 이상 수석합격자 지도교사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천군장민장학회 또한 2020년도에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은 폐지하였으나 고등학교 담당교사로 명문대학 또는 대학(4년제) 진학률을 높인 우수교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림12] 2020년 무안군승달장학생 선발 공고

<p><b>5) 우수 지도교사</b></p> <p>○ 선발대상</p> <p>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내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우수 지도교사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격려금 지급</p> <p>※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하고 필요시 증명서류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 단위이상 경시대회 개최결과 우수로 입상한 학생의 지도교사</li> <li>2. 명문대 합격자 또는 전문대이상 수석합격자 지도교사</li> <li>3.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사</li> </ol>
---

[그림13] 2020년 예천군민장학회 우수교직원 선발 계획

<p>우수교직원</p>	<p>공고일 기준 관내학교 재직자로 우수교직원으로 추천된 자로 최근 3년 이내 선발된 기록이 없는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등학교 담당교사로 명문대학 또는 대학(4년제) 진학률을 높인 우수교원</li> <li>② 우수 학생유치 등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직원</li> <li>③ 특기 신장 및 연구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직원</li> </ol>
--------------	---

경남 하동군장학재단은 소위 ‘우수대학’ 재학생들에게 여전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2020년에는 우수교사 격려금도 지급하지만, 다행히 우수교사 격려금 지급 사업은 2021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림14] 하동군장학재단 홈페이지



이러한 일부 장학재단의 특정대학 합격자 지도교사를 우수 교사로 포상하는 제도는 공교육 내 교사의 역량조차 진학 실적으로 재단하며 반교육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야기, 공교육 내 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대학 우대 장학금과 더불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 지자체들은 장학금 차별 지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유능한 인재발굴과 학생들의 면학의 지 고취,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함.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교육여건이 열악한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열심히 노력한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에 적합”

“학생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고, 명문대생 배출로 인한 관내 고등학교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기준에서 다른 장학생도 선정”

“지속적인 인구 감소(입학생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시기에 우수대학교 입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홍보, 젊은 층 인구유입,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등의 이유로 특정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합리적이라며 유지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학벌 위주의 장학금 지급은 타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구성하는 유능한 인재는 성적이라는 시험의 결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시험 성적이 좋은 구성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질, 적성,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곳곳을 채우며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학재단이 부각시키는 ‘성적지상주의’와 ‘학벌주의’는 좋은 인재상을 국영수 성적 중심의 인재로 국한시켰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파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의협)가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파업 중에 올린 아래 게시물입니다.

문1)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



매년 전교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좋은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그가 학교에서 몇 등을 했고,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게시물은 마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직업 능력까지 탁월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성적지상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 대해 여론 또한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 걸로 몇 십년을 우려먹을 건지’라고 비꼬았고, ‘의사씩이나 되어서 환자에게 ‘전교1등’이었다고 우쭐거리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노컷뉴스, 2020-09-03)

의협은 이 게시물을 바로 내리고 사과하였지만, 이 헤프닝이야말로 지자체 장학재단이 거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전교 1등, 의대 등의 우수한 미래 인재가 어떤 관행과 인식에서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학벌주의라는 괴물이 우리 사회의 인재상을 어떻게 획일화시키고 왜곡시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 경제곤란 장학금의 10배 이상을 우수대학 장학금으로 집중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8조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에도 부합하지 않음.

한편, 우수대학, 명문대 장학금 지급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소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남해군향토장학회 정도만 선발기준 : 성적 45% + 생활정도 45% + 가산점 10%를 적용해 부모 소득이 고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역의 모든 특정대학 진학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통계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고소득층(8, 9, 10분위) 자녀비율은 이 56.6%(2020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더불어민주당강득구의원 발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이 더욱 절박한 곳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부모의 조력(사교육과 정보력, 좋은 교육 환경)을 지렛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충분해도 극복할 수 없는 가정의 배경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격차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그로인한 교육불평등이 심각하게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벌중심적 장학금 지급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특히 지역 격차까지 고려한다면 소득과 지역 격차라는 이삼중의 격차를 보완하고 개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지자체 장학재단의 사회적 책무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소득, 가정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집단의 교육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배경을 고려하고,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해 지역 인재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 연 □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에 경제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의무는 실시하였지만 성적우수자에게 장

학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기회의 균등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함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제곤란 장학금의 10배 이상을 우수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인재 육성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임. 출신학교에 따른 장학금 사업으로 대입 결과에 매몰되어 소수만 주목하는 학벌주의가 공고해질수록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정착하는 인재를 통한 지역 발전은 요원해 질 것임.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신입생 유치 활동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고교에 신입생 유치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수학교 지원사업】**

- 2020년도 지역고교 신입생 유치 활동비 : 4개교 / 학생수별 차등(10월 지급)
  - 1학년 전체 학생수가 50명 이상 : 3백만원
  - 1학년 전체 학생수가 30 ~ 50명 : 2백만원
  - 1학년 전체 학생수가 30명 미만 : 1백만원
- 2020년도 고교우수신입생 유치 인센티브 : 유치학생 1인당 / 3십만원(4월 지급)
  - 중학교 내신(10%이내) 또는 도학력고사 10%이내 학생

하지만 지자체 스스로가 현재의 대학서열을 당연시하고, 서울>수도권>지방 등의 지역과 학벌로 줄세우는 풍토를 자자체가 나서서 유도한다면 지방의 학생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마치 ‘당연한 차별’로 내면화하게 되고, 열패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지역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소수만 집중 육성하는 환경에서 ‘소외 받은 다수’가 택하는 것은 각자도생, 적자생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대 육성법에서는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에 대한 입학 할당제, 지역인재 우대채용을 규정하고 있고, 혁신도시법과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광주은행은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에서 광주·전남 지역인재 80%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기업도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장학재단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소수만 집중 장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에 엇박자를 놓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지역인재가 다시 그 역량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의 바탕에는 애향심과 애교심이

마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지역의 중고교, 대학생 장학사업 또한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모시켜 지역 내 고용까지 유기적인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로 떠나는 소수의 인재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방 자치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새롭게 지역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장학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의 책임을 방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으로 차별하며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음.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학력과 출신학교 또한 사회적 신분에 포함하여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행위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 의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인재 육성의 책임을 방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으로 차별하며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관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15]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수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출신학교에 따른 장학금 차별 지급의 이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통상 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나 장학회는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 출연금과 기탁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이사회와 장학위원회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으로서 차별을 완화하고 평등 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넘어서서 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지자체 장학재단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함.

2019년 11월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남녀 4,00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장학재단이 나서 특정대학 진학을 부각시키고, 그 진학실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며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국민의 목소리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기본법과 지

방자치법에 충실하게 △현재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일상에서부터 무섭게 파고든 학벌주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출신학교에 따른 줄세우기와 지역 차별을 내면화하게 만들고 각기 다른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이 학교 교육을 바로잡고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제도를 바로잡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학재단 문제와 같이 뿌리깊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의견표명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24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0. 11. 19.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김은중(02-797-4044/내선번호 503)